일 주 문



운허 스님 37주기 기신재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11월 27일 오전 10시 경내 청풍루에서 '제37주기 운허 스님 기신재'를 봉행한다.



대흥사 겨울이야기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12월 2~3일 북미륵암을 오르는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대흥사 4색 4계 겨울이야기'를 개최한다.



역사 돌아보는 1일 축제

정도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11월 18일 경내에서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사시낙락(史視樂樂)-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을 개최한다.



어린이지도자연수회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11월 25~26일 경주 황룡원서 '제6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여성개발원 17주년 기념식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은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봉행한다.

대관음사, 25주년 '찬불가'로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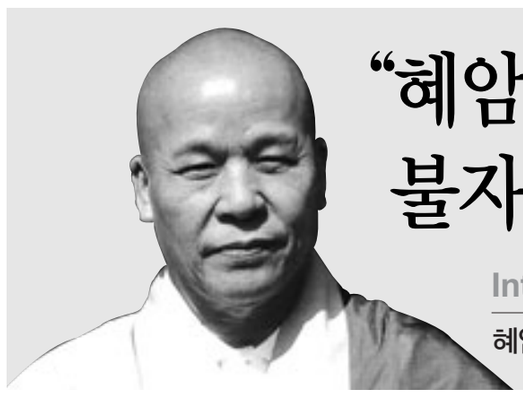
11월 3일 10여개 합창단 참여



대구 도심 최대 포교당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사찰 창건 25주년을 기념하는 찬불가 합창제를 11월 3일 대구 엑스코(컨벤션선터)5층 오디트리움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주 우학 스님은 2016년 조계종 신작 찬불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팔상성도 이야기' 등 10여 곡의 찬불가를 무대에 올렸다.

무대에 오른 10여개 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부터 청년합창단, 불교합창단 최초의 실버합창단까지 다양한 연령대별로 꾸려졌고 각 지역 도량별로도 합창단을 구성했다. 특히 지난 3월 지역불교계 최초로 창단된 한국불교대학 오케스트라 연주는 합창단의 화음과 어우러지며 행사장을 가득 매운 2천여 명의 신도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우학 스님은 "찬불가를 부르게 되면 법당에 활기가 넘치고 젊은 불자들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불교가 현실에 맞게 되는 큰 의미에서도 찬불가의 보급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혜암 스님 구도여정 알려 불자들 신심 고취 돕겠다"

Interview

혜암대종사문도회장 성법 스님

조계종 10대 종정 혜암 대종사
2020년 탄신 100주년 순례법회
일대기 조명 위한 출간사업 추진
"용맹정진의 삶, 후대에 알릴 것"

"혜암 스님께서는 인욕과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500생 동안 인욕 정진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며 인욕을 명심하라고 재차 당부하셨죠. 이 같은 스승의 정신과 업적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스님의 생전 수행처를 순례하고 평전 발간과 전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전개된다. 혜암대종사문도회는 11월 14일 남해 용문사에서 '혜암 대종사 수행처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순례자 4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회는 앞으로 혜암 스님의 발자취가 담긴 수행처 20여 곳을 순례할 계획이다.

혜암대종사문도회장 성법 스님〈사진〉은 스승인 혜암 스님에 대해 "인욕 정진을 강조하고 실천 수행한 참된 수행자였다"고 회고했다.

"해인사 퇴설당(堆雪堂)에서 3년 동안 결사하고 용맹정진 하실 때 제가 공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셨지요. 그때 제가 방황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어찌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선 '백전백승(百戰百勝)이 불여일인(不如一忍)이요, 만언만당(萬言萬當)이 불여일묵(不如一默)'이라며 '백번 싸워 백번 이겨도 한 번 참는 것보다 못하고 만 번이나 구구절절 바른말을 해도 한 번 침묵한 것보다 못하다'는 게송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1965년 혜암 스님을 처음 만난 성법 스님은 그리움으로 생각에 잠긴 듯 짧은 침묵을 반복하며 말을 이어갔다. 성법 스님은 "혜암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참된 수행자의 삶을 조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혜암대종사문도회와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혜암 스님 수행처 순례법회를 비롯해 문집정본화 사업, 〈위대한 스승, 혜암〉 및 〈평전〉 등 출간사업,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준비 중이다. 성법 스님은 "탄신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공부를 강조하신 혜암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한 방편"이라 설명했다.

"혜암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출가하셨습니다. 평생 수좌로 공부를 하셨지요. 열반에 드실 때까지 눕지 않고 장좌불와 수행을 하셨어요. 안으로는 치열한 정진과 밖으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며 정신적 지도자로 사셨습니다. 혜암 스님의 치열한 구도 여정을 알려 신심을 고취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성법 스님은 기념사업과 관련해 "혜암대종사문도회는 5년 전 혜암 스님의 뜻을 잇기 위해 혜암선사문화진흥회를 설립했다"며 "진흥회는 포교, 교육, 승가복지, 사회복지 그리고 장학사업, 다문화지원사업 등 불교 사회 활동을 펼친다. 진흥회와 함께 큰스님의 삶을 잘 정리해 후대 모든 인연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명예원로 이두 대종사 원적

법랍 66세, 세수 90세로…
11월 6일 금오문도장 봉행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자 청주 관음사 회주인 월암당(月庵堂) 이두(二斗) 대종사〈사진〉가 11월 4일 새벽 관음사 석수실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6세, 세수 90세. 영결식은 6일 관음사에서 금오문도장으로 봉행됐으며, 법주사 연화대서 다비가 엄수됐다.



이두 스님은 1929년 음력 12월 5일 강원도 김화군 금남면 문암리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전 가족들과 남으로 내려와 대구 관음사에서 금오 스님을 친견하고 발심출가했다. 1951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1956년 동화사 강원서 불교학을 공부한뒤 1959년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64년에는 전남 장성에 흙집을 지어 '능인교민원'이라 이름 짓고 6년간 학동을 가르치는 등 두타행을 실천했다.

이두 스님은 지역포교와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을 수차례 역임하면서 종교간 화합에 앞장섰으며, 충북경실련 초대 공동대표를 맡아 시민단체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특히 〈직지심체요절〉을 한글 번역하고 강의하는 등 예술계 인사들과 깊이 교류하기도 했다.

금오문중 어른으로서 1971년 갑사 주지, 1978년 법주사 주지를 지냈다. 이후 총무원 교무부장, 인천 보각선원장, 청주 관음사 주지 등을 맡았다. 2000년 금오문도회 문장으로 선출됐으며, 그해 10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2004년 5월 해인사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승려문인으로서 활동도 활발했다. 1978년 첫 시집 〈겨울 빗소리〉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창문에 울린 초음〉 〈그대가 만나는 산길〉 〈만나고 헤어지는 물가에〉 등 여러 시집과 수상집을 발간하고, 구도소설 〈명암이 없는 선하 앞에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두 스님은 열반송을 따로 전하진 않았지만 임종에 즈음한 시를 써서 제자에게 부촉했다.

인생은 한 조각의 꿈/ 그동안 살아온 삶이 세월 따라갔고/ 세월 속에 나도 따라갈 뿐이다/ 맑은 바람 밝은 달 너무도 풍족하니/ 나그네길 가볍고 즐겁구나/ 달빛 긷는 한 겨울/ 복사꽃이 나를 보고 웃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철대종사 열반 24주기 추모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가 퇴옹당 성철대종사의 열반 24주기 추모재를 11월 8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열린 추모재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주지 향적 스님, 문도대표 원택 스님, 산중 원로스님, 하창환 합천군수를 비롯해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철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성관 스님, 동국대 경주에 1천만원



부산 전법사 회주 성관 스님이 11월 8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건립기금 1천만원을 김세곤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장에게 전달했다.

성관 스님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한 것을 잘 알고 있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부했다"며 "절 규모가 크지 않아 더 많은 기부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용인 대원사, 약사여래불당 개원



용인 대원사(회주 송산,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는 11월 5일 '약사여래불당 개원식 및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송산 스님은 10여 년 불사 끝에 15m 높이의 약사대불을, 이어 약사여래 원불 1천불을 모신 약사여래불당 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증명법사 혜봉 스님(종정협 회장, 해동종 종정), 우담 스님(중앙불교조계종 종정), 혜일 스님(한국미륵불교선종 종정). 청파 스님(율사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스님(통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일 스님(한국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지광 스님(생활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